

申弘望의 유배일기 <長沙日錄>의 특징적 기록 경향과 자료적 가치

최은주*

- I. 머리말
- II. 『장사일록』의 기록 배경과 저자 申弘望
- III. 『장사일록』의 특징적 기록 경향
 - 1. 유배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
 - 2. 도움을 준 인물들에 대한 꼼꼼한 기록
 - 3. 회고록 형식의 담담한 기록
- IV. 맺음말 : 『장사일록』의 자료적 가치

국문초록

고송孤松 신흥망申弘望(1600~1673)의 유배일기 『장사일록長沙日錄』은 1652년(효종3) 10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작성된 것이다. 10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한양으로 압송되는 여정을 기록하였고, 이후 11월 13일까지 약 25일 동안은 홍제원에서 유배지가 평해로 확정될 때까지 명을 기다리는 자신의 상황을 매일매일 기록하였다. 이때 신흥망이 장기간 홍제원에서 명을 기다린 것은 당초 벽동(현재 평안북도)으로 정배된 후 조정에서 정배 철회 논란이 지속되다가 도중에 감등減等되어 중도부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ejchoi@koreastudy.or.kr

처中途付處 형벌로 변경되었고, 이조차도 대신들의 철회 요청으로 혼란이 야기되면서 유배지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유배지로 출발해서 그 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해배되어 평해를 떠나는 날까지 기록하였다.

살펴본 결과 『장사일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 기록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첫째, 유배형이 확정되어 집행될 때까지 조정의 논란이 지속되었는데 그 속에서 신흥망 개인이 겪은 상황이 정치적 배경과 함께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역사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배형 확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된 셈이다. 물론 개인의 시선이라는 한계는 뚜렷하다. 둘째, 신흥망은 유배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인물들과 그들이 지원해 준 行資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대개의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나 호 또는 관직만 언급되기 일췌여서 누구인지 알기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신흥망은 『장사일록』을 기록하며 인물마다 방점 표시를 할 만큼 공을 들였다. 인물 표기 또한 당시 관직명을 정확하게 적거나 관직이 없을 땐 성명을 적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배 당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년에 일기 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이기에 신흥망이 유배 당시 지냈던 정서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장사일록』은 신흥망이 추후에 다시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인물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것 인만큼 단면적이기는 해도 당시 중앙 정계 인물들의 정치적 교류를 입체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고 신흥망 개인 또는 문중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과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넘나드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 주제어

고송 신흥망, 오봉 신지제, 『장사일록』, 유배일기, 의성 아주신씨, 『고송집』

I. 머리말

유배일기는 ‘유배의 원인’과 ‘유배형의 집행’이 있어야 생산되는 특수한 일기이다. 유배일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배형을 받게 된 배경에서부터 유배 여정과 유배지에서의 생활, 마지막으로 해배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까지를 담게 된다. 기록 당시 어떤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느냐는 기록자가 처한 물리적 상황과 정신적 상태 그리고 기록 성향이 복잡하게 얽혀 발현된다. 조선시대 유배형 시행은 정치적 배경이 긴밀하게 작동한 경우가 많았으며, 동시에 유배인의 지위와 신분계급, 처한 상황에 따라 실제적인 운영도 편차가 다양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유배형을 받아 어떻게 이동하고 또 어떻게 유배지에서 생활하는지가 기록자의 관심과 개인 성향에 따라 기록 내용의 편폭이 차이가 크고, 또한 기록자의 감정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도 그 기록 내용은 전혀 다른 결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배일기로서 그 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자료는 默齋李文樾(1494-1567)의 『默齋日記』와 孝田沈魯崇(1762~1837)의 『남천일록』을 들 수 있다.¹⁾ 주지하다시피 이 두 자료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의 유배 생활을 담고 있기에 배경부터 유배지에서의 일상까지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일기 분량도 방대하다.²⁾ 이 외에 연구가 이루어진 유배일기는 비교적 짧은 분량이 많은데, ‘유배’라는 공통 범주 내에서 개별적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李必益(1636~1698)의 『北竄錄』(1책)은 관직이 없는 유생의 유배 생활이라는 점에서,³⁾ 尹陽來(1673~1751)의 『北遷日記』(12장)는 유배지인 갑산까지의 유배 여정만 기록했다는 점

-
- 1) 『목재일기』와 『남천일록』에 관해서는 연구 성과가 적지 않기에 지면상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 2) 『목재일기』 10책 가운데 7책 분량 즉 1545년부터 1567년까지가 유배일기에 해당한다. 『남천일록』은 20권 20책으로 심노승이 1801년부터 1806년까지 기록한 것이다.
 - 3) 김경숙, 「17세기 후반 유생 이필익의 유배생활」, 『한국문화』 38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에서,⁴⁾ 金鑣(1805~1866)의 『艱貞日錄』(1책)은 몰락 양반이 섬에서 겪은 유배 생활이라는 점에서,⁵⁾ 金鑣(1766~1821)의 『坎菴日記』(1책)은 부녀으로 가는 유배 노정에서 많은 한시를 창작해 함께 수록했다는 점에서,⁶⁾ 李栽(1657~1730)의 『蒼狗客日』은 유배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의 유배를 시종한 아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⁷⁾ 이러한 개별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배 당사자가 아닌 유배압송관이 기록한 일기도 있다.⁸⁾ 이상은 특징이 분명한 유배일기들만 거론했다. 이 외에도 유배일기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사료로 활용해 유배형의 운영과 유배 생활 등을 연구한 사례를 거론하면 그 성과는 더욱 확장된다.

孤松 申弘望(1600~1673)의 『長沙日錄』은 1652년(효종3) 10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록된 유배일기이다. 신흥망은 유배형이 떨어져 유배 길에 올랐지만 한성으로 압송되는 도중 감동부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대신들이 부처 환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효종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등 조정에서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홍제원에서 명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흥망을 물심양면 돕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특히 조정의 논란에 가까이 있었던 현직 관리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채롭다. 또한 신흥망이 자신의 유배 과정에서 접촉한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지원해 준 行資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

-
- 4) 박옥수, 「晦窩 윤양래의 일기고찰 - <북천일기>의 발굴을 통해」, 『연민학지』 9집, 연민학회, 2001.
 - 5) 김정옥, 「<간정일록>을 통해 본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 『도서문화』 37집,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1 ; 정진영, 「섬, 풍요의 공간-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 『고문서연구』 43집, 한국고문서학회, 2013 ; 정진영, 「섬, 소통의 공간 - 金鑣의 <艱貞日錄>을 통해본 19세기 섬의 형상」, 『역사와경계』 88집, 부산경남사학회, 2013 ; 김미선, 「<간정일록>의 기록 성향과 특징」, 『한국문학연구』
 - 6) 박준원, 「<감담일기> 연구」, 『한문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 정우봉,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한국한문학회』 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 7) 이병갑 외,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8) 조수미, 「유배압송일기 <北征日記> 연구 - 유배인과 압송관의 갈등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2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였다는 것도 이 일기의 특징이라 하겠다. 대개의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나 호 또는 관직만 언급되기 일췌여서 누구인지 알기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신흥망은 『장사일록』을 기록하며 인물마다 방점 표시를 할 만큼 공을 들였다. 인물 표기 또한 당시 관직명을 정확하게 적거나 관직이 없을 땐 성명을 적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본고는 신흥망의 유배일기가 이러한 특징적 경향이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배형이 확정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던 논란의 과정을 그의 시선에서 재구성해보고 이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석해 그의 인맥 기반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의성 출신으로서 영남 남인 신흥망 개인과 그 가문의 당시 정치적 사회적 입지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직까지 신흥망 개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II. 『장사일록』의 기록 배경과 저자 신흥망

申弘望의 자는 望久, 호는 孤松, 본관은 鵝州로 의성 출신이다. 아주신씨 의성 입향조는 고려 충렬왕 때 判圖判書를 지낸 申允濡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현재의 의성군 단밀면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고 한다. 아들 申祐는 고려말 전라도안렴사를 역임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학문에 전념하였다. 신우는 光富와 光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여기에서 內府令公派와 鳳州公派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아주신씨 가문 내에서는 신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내부령공파를 邑派로, 신광귀를 중시조로 하는 봉주공파를 龜派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내부령공파가 읍성에 세거하고 봉주공파가 鳳陽面의 龜尾里에 세거했기 때문이다. 읍파는 16세기 초 悔堂 申元祿(1516~1576)부터 변창하기 시작했고, 봉주공파는 梧峯 申之梯(1562~1624)가 구미리에 입향하면서 큰 가문을 형성했다.

신흥망은 부친 신지제와 모친 함안조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모친은 청송에 거주했던 望雲亭 趙址의 딸이다. 신흥망은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敬亭 李民歲(1570~1629)과 旅軒 張顯光(1554~1637)의 문하에 드나들기도 했지만, 주로 부친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흥망의 부인 영천이씨는 바로 이민환의 딸이다. 1627년(인조5) 28세 때 진사시에 합격 후 1639년(인조17) 40세 때 별시문과에 급제했다. 처음에 성균관권지학유에 보임되자 당시 영돈녕부사였던 李聖求가 신흥망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한림원에 추천했는데, 요직에 있던 누군가가 이성구에게 “이 사람은 명망이 있으므로 가만히 있어도 공론으로 올라갈 텐데, 어찌해서 이렇게 급급하게 끌어당기는가!”라며 만류했다고 한다.⁹⁾ 신흥망은 이때부터 6년 동안 집에서 거처하였다. 1644년(인조22) 4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어 부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82세 된 노모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다시 관직에 나아간 것은 1646년(인조24) 2월이었다. 이때 그는 성균관전적에 부임했다가 곧 병조좌랑으로 자리를 옮겼고, 5월에는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예조좌랑으로 옮겼지만 몇 개월 뒤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이듬 해 가을 신흥망은 다시 사간원정언이 되었는데, 당시 노모가 그의 부친 신지제의 유적이 있는 전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이조판서였던 趙綱(1586~1669)이 듣고 신흥망을 전주관관에 首望으로 낙점하였다. 그가 전주로 떠나는 날에는 한양 旅邸에 鶴沙 金應祖 · 懶齋 申悅道 · 漫浪 黃屛 · 鋤谷 李元圭 등이 모여 이별의 시문을 주며 전송하였다.¹⁰⁾ 신흥망의 부친 신지제는 1601년(선조34) 전주관관으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에 따라 그가 체직된 뒤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공덕을 기렸다고 한다.¹¹⁾ 1650년(효종1) 모친상을 당하자 슬픔과 공경을 갖추어 상제례의 절차를 한결같이 준수했으며, 복제를 마친 1652년(효종3) 7월에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어 부임했다. 그의 나이 53세 때였다. 신흥망이 유배를 가게 된 사건이 이즈음 발생

9) 신흥망, 『고송집』 부록 上, 「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

10) 신흥망의 문집인 『고송집』 부록 下에 이들이 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11) 申之悌, 『梧峯集』 附錄, 「行狀」

했다. 李時樸(1603~1667)가 올린 사직상소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신홍망이 상경하기 전이었던 6월 24일, 사헌부는 당시 병조참판 이시매의 체차를 요청했었다. 그 이유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시매가 몸가짐과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는다는 비난이 파다했는데, 그가 승정원 도승지로 있을 때부터 이미 이러한 물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병조참판에 제수되고 나서는 그 공론이 더욱 격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효종은 이시매의 체차를 허락하지 않았다.¹²⁾ 이후 9월 3일에 이시매는 도승지에 제수되었는데, 다음 날 사직상소를 올렸다. 그 명분의 핵심은 자신처럼 욕먹는 사람이 어떻게 임금을 섬기고 조정의 반열에 끼일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더구나 도승지는 지위와 명망이 매우 깨끗한 자리이기에 더욱더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상소문에는 이러한 비난이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이라며 그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깊이 담았다. 효종이 이시매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자¹³⁾ 이시매는 바로 다음 날인 9월 5일에 사직상소를 다시 올렸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시매의 상소문에 아래와 같은 말이 빌미가 된 것이다.

벼슬살이를 근신하지 않는다고 헐뜯거나 喪中에 삼가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으로 말하면 예전부터 남을 무함하는 투식입니다. 옛 어진 先正들도 이것으로 많이 무함당했습니다.¹⁴⁾

신홍망은 상소문을 보고 그가 선현을 모욕했다며 분개했다. 그리고 9월 17일에 신홍망은 이시매의 상소가 있자마자 탄핵의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병으로 직무를 버리고 그 논의를 늦춘 것이 태만했다며 자신의 사직을 요청했다. 그러나 효종의 허락을 얻지 못했고, 신홍망은 물러나지 않은 채 곧바로 이시매를 사관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효종은 사헌부의 관원이 한 두 명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신

12)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6월 24일

13)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3일

14)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5일

홍망이 이러한 탄핵을 혼자서 아뢰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승정원에 물었고, 승정원에서는 동료와 相會禮를 행하면 반드시 서로 글을 주고받은 후에 아뢰지만 상회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간혹 홀로 아뢰 때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효종은 다른 동료들이 무슨 사고가 있었기에 상회례를 하지 않고 신흥망이 홀로 아뢰는 것인지 다시 물으며, 신흥망에게 물어서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흥망은 이에 대해 동료에게 사고가 없더라도 피험 중에 있으면 간통하는 규례가 없고, 사직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았지만 퇴대하지 않고 이어서 논계한 것 또한 전례가 있으므로 홀로 아뢰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시매가 선현을 모욕한 것에 분개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¹⁵⁾

효종은 신흥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욱이 19일과 20일에 연달아 올라온 진사 李堂揆와 李斗徵를 중심으로 한 유생들의 상소 때문에 마음이 더욱 불편했다. 이당규가 이시매의 죄를 다스려 유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상소를 올렸다가 벌을 받자, 이두징이 이당규와 함께 벌을 받겠다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두징의 상소가 봉입된 날 효종은 몹시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쪽 편의 黨論이 모두 불평을 품고 저격하려 하나 죄목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모욕’ 두 자를 빌어 젊은 유생들을 격동하고 또 속없는 신흥망을 부추겨 괴이하고 놀라운 꼴을 허다하게 만들어냈다. 이것이 매우 미워서 疏頭인 유생에게 약간의 벌을 주어 뒷사람을 징계하였는데, 이들이 이제 또 상소하여 같이 죄를 받겠다는 핑계를 대며 분한 마음을 풀려 하니, 더욱 해괴하다.¹⁶⁾

효종에게는 ‘선현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이시매를 탄핵하는 것이 黨論으로 같은 편을 옹호하고 다른 편을 공격하는 행태로 보였던 것 같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말실수를 가지고 지나치게 상황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⁷⁾ 특히 유생들의 상소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생각

15)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17일

16)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20일

17)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19일, 주장 후에 효종은 지경연사 심지원

이 더욱 확고해졌다. 19일 疏頭로서 상소를 올린 이당규는 이성구의 아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세한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이성구는 신흥망의 초입사 당시 그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한림원에 추천할 만큼 그에게 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구는 이수광의 아들이자 이민구의 형이다. 이수광은 당색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를 비롯해 두 아들과 후손들 모두 『남보』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들 가계는 남인으로 분류한다. 또한 20일에 함께 벌을 받겠다고 상소를 올린 이두징은 延原府院君 李光庭의 손자이자 李(示+分)의 아들인데, 역시 남인의 가계로 분류할 수 있다. 9월 19일의 기사 말미에 “이당규는 고 재상 李聖求의 아들인데, 자기편은 감싸고 다른 쪽은 배척하는 의론을 선도해 봉당의 무리가 따라서 和應하여 상소까지 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黨論의 폐해가 심하였다.”라고도 하였으므로, 어쨌든 당시에 이들의 행동이 같은 편인 신흥망을 감싸고 반대편인 이시매를 공격하는 것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이시매는 體素 李春英의 셋째 아들로, 이춘영이 서인의 영수급이었고 또한 김육이 이춘영의 외질로 이시해·이시매 형제와 가깝게 지냈던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들 집안이 서인의 계통으로 주로 서인계 인물들과 교류가 잦았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신흥망의 이 사건은 趙錫胤(1606~1655)의 일과 겹치면서 효종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 측면이 있다. 효종은 시종일관 조석윤과 신흥망을 함께 거론하며 자기 무리를 감싸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행위라고 분노를 쉽게 거두지 않았다. 이 해 7월에 조석윤은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는데, 마침 이조판서가 鄭世規(1583~1661)였다. 조석윤은 이조참판에 제수된 후 9월에 휴가를 얻어 성묘를 하러 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사직 상소를 올렸다.¹⁸⁾ 사직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이조참판이 되기 전 사석에서 정세규가 銓長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반

에게 물기를 “근일의 일로 말해 보면, 李時樸가 상소한 사연에 잘못된 것이 조금 있었는데, 무식하다고 한다면 괜찮겠으나, 申弘望은 모욕이라 지목하고 홀로 아뢰기 까지 하였다. 경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다.

18)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15일

드시 정세규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그의 佐貳官으로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이었다.¹⁹⁾ 이후 정세규 또한 조석윤의 상소를 빌미로 여러 차례 사직을 요청하였고, 이때부터 효종은 이 두 사람의 일을 하나로 묶어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석윤은 김상헌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문집 『樂靜集』 서문을 송시열이 썼으며 율곡과 우계의 문묘종사를 찬성하며 上箚한 이력이 있다. 정세규는 鄭彦信의 손자이자 鄭慄의 아들이며 門蔭으로 이조판서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정언신은 동인의 대표적 인물로서 기축옥사 때 화를 입어 갑산으로 귀양 갔으며, 당시 아들 정륜이 원통해하며 단식 끝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조석윤과 정세규의 이 사건이 뚜렷한 이슈에 따른 서인과 남인의 첨예한 갈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배경으로 파악한다면 서로의 계보가 다르다는 각자의 인식이 분명했기에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효종은 조석윤이 정세규를, 신흥망이 이시매를 공격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護黨의 시각에서 바라봤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인물들의 계열로 본다면 서인이 남인을, 그리고 남인이 서인을 공격하며 자신의 무리를 감싼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0월 6일 의금부에서 두 사람의 배소단자를 재계 때문에 들이지 못할 때에도 효종은 두 사람이 각각 제 당여를 위해 국가를 어지럽힌 죄가 크다고 常規에 얽매이지 말고 곧바로 들이라며 분부했다. 얽혀 있는 이 두 사건의 경과를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거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약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 9월 5일 : 이시매 사직상소
- ▶ 9월 15일 : 조석윤 사직상소
- ▶ 9월 17일 : 신흥망의 사직 요청 후 이시매를 사판에서 삭제하라고 요청
- ▶ 9월 18일 : 사간원의 건의로 신흥망 파직
- ▶ 9월 19일 : 이시매를 치죄하라는 진사 이당규 등의 상소
- ▶ 9월 20일 : 진사 이두정이 이당규와 같이 처벌받기를 청하는 상소

19) 『효종실록』 8권, 효종3년 임진(1652) 9월 12일

- ▶ 9월 25일 : 조석윤의 사직 운허
- ▶ 10월 6일 : 조석윤과 신흥망을 유배하라는 하교, 승정원에서 조석윤과 신흥망의 유배형이 심하다고 중지해달라고 건의하자 護黨의 악습을 경계함, 조석윤을 강제로 신흥망을 벽동으로 정배, 승정원에서 두 사람의 정배 철회를 요청했으나 불허
- ▶ 10월 7~8일 : 시간원·사헌부·홍문관에서 정배 철회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불허
- ▶ 10월 9일 : 영의정 정태화가 두 사람을 용서하라고 건의
- ▶ 10월 10일~16일 : 양사에서 거의 매일 정배 철회를 요청함
- ▶ 10월 17일 : 양사의 요청에 감등부처하라는 명을 내림
- ▶ 10월 18일~28일 : 양사에서 매일 감등부처 철회를 요청함
- ▶ 11월 2일 : 양사가 감등부처 철회를 요청하는 논계를 정지함, 조석윤은 간성으로 신흥망은 평해로 정배함.

III. 『장사일록』의 특징적 기록 경향

신흥망의 『장사일록』은 필사본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낡은 표지에 ‘長沙日錄’이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적혀있으며, 첫 부분에 증손자 申震龜가 쓴 서문이 붙어 있다. 서문에는 신흥망이 일기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작성 경위 그리고 신진귀가 일기를 보존한 내력이 간략하게 밝혀져 있다. 신진귀는 신흥망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표지를 포함해 전체 66면 분량 가운데 40면부터는 신흥망의 行狀草記가 기록되어 있다. 1738년(영조14)에 신진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집에 수록된 이광정이 쓴 행장과 권상일이 쓴 묘지명은 이 초기를 참고삼아 작성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기 내용은 36면의 분량을 차지한다. 이 일기자료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 ‘義城梧峰宗宅所藏典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일기는 압송이 시작되는 1652년 10월 9일부터 해배되어 집으로 돌아온 12월 21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앞부분에 유배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끝부분에는 발문 성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신흥망 사건의 경과를 보면 처음에 벽동에 정배되었다가 감등부처 되었고 이후

감등부처 철회에 대한 대신들의 지속적인 요청 때문에 배소를 정할 때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1월 2일에 평해로 배소가 결정되면서 조정에서는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신흥망은 이 때문에 서울로 압송된 후 한참 동안 대궐 근처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평해로 배소가 정해지면서 이때부터 배소로 이동했다. 14일의 여정을 거쳐 11월 17일에 배소에 도착했고, 12월 14일에 해배 소식을 들었으며 12월 20일에 배소를 출발해 다음 날 의성의 본가에 돌아오는 것으로 일기는 끝이 난다. 『장사일록』을 검토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일기가 신흥망이 말년에 유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일기 마지막에 덧붙은 신흥망이 쓴 발문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²⁰⁾ 기록 내용이 소략하지 않고 더욱이 도움을 준 인물에 대해서는 그 성명과 지원 물자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필요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메모해두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신흥망은 이 초고에 기초해 훗날 날짜별로 다시 정리해 기록했을 것이다. 유배형이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란의 시간이 꽤 길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일기가 그날그날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초고와 기억에 의거해 완성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아래와 같은 『장사일록』의 특징적 기록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1. 유배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

신흥망은 일기 첫머리에서 임진년(1652, 효종3) 9월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 2면에 걸쳐 기록하였다. 일기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시작한다.

임진년 9월 내가 지평으로 서울에 있을 때, 마침 이시매가 쓴 亂疏 중의 말이 선현을 모독한 사건을 겪게 되어 독단으로 논계하였다. 대청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

20) 신흥망, 『장사일록』, “息眉之暇 略記行中顛末 日之曰長沙日錄 遺諸子孫 庶幾因此以起他日追遠之思云 黑龍臘月孤松病夫書于樂善堂.”

다고 사간원의 논박을 당해 파직되었다. 본월(9월) 그믐 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²¹⁾

9월에 사헌부 지평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겪었던 사건과 파직당해 집으로 돌아온 상황을 짧게 요약했다. 그리고 한 줄 내려서 ① 이시매가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지 않았고, 喪중에 있을 때는 삼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라에 자자했다는 것 ② 사헌부 지평 李濫이 사헌부 동료들과 모여 이시매의 탄핵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장차 啓草를 쓰려는데 동료들이 저지하면서 긴요한 말을 삭제했고 잇따라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 ③ 이시매가 도승지에 제수되자 스스로 불편한 마음에 사직상소를 누차 올렸는데, 그 장소 가운데 선현을 모욕한 말이 있었으므로 士林들이 일제히 분개하며 館學에 통문을 돌리고 장차 상소를 올려 죄를 성토하러 한 것까지 차근차근 기록하였다. 앞에서 실록에 의거해 잠시 언급했듯이, 6월 24일 사헌부에서 이시매가 몸가짐을 단속하지 않고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체차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의론을 낸 것이 바로 이온이었는데 마침 이날 이온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계사에 연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온은 1635년(인조13) 蔡裕後와 權躋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때 가담한 행적이 뚜렷했기에, 당시 서인들의 배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²²⁾ 신흥망은 이와 같은 사건을 맞닥뜨린 당시에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이때 모괴 중에 있었는데, 장차 나아가 논계하러 하니 동료들이 時樞의 권세를 두려워해 굳이 만류했다. 또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홍문록에 들었고, 들으니 내일 銓曹에서 開政이 열린다고 하니 우선 보류하라. 이 啓가 한 번 나가면 환로가 이로부터 막힐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며 “세간의 榮辱은 정해진 분수가 있는데 내가 어찌 멩에 맨 망아지[轅下駒]처럼 이것에 구애받겠는가.”라고 말하

21) 신흥망, 『장사일록』, “○壬辰九月 余以持平在京 適值李時樞亂疏中語侵先賢之事 獨斷論啓 不循臺廳流例 被諫院駁罷 本月晦間還鄉”

22)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1652) 3월 23일 기사

고는 마침내 避辭를 먼저 올리고 잇따라 彈章을 올렸다. 홀로 아뢰는 것은 규례가 아니지만 내가 어찌 몰랐겠는가? 마치 못하는 바가 있어서였다.²³⁾

이것으로 본다면 신흥망은 독단으로 논계하기 전에 일부 동료들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매를 논박하려는 탄장을 올리려는 본인의 뜻을 주위에 확고하게 전달하자, 동료들은 홍문록에 들어 다음 관직이 보장되는 상황에 괜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이시매의 권세가 대단한 만큼 환로가 차단될 수 있다며 걱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흥망은 결행했고 이로 인해 사간원의 논박을 받아 파직당했다. 위의 예문 뒤에는 당시 그가 올린 啓辭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계사는 신흥망의 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²⁴⁾ 이러한 기록은 유배를 가게 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신흥망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외부로 드러난 결과적 사건의 이면에 존재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계사의 기록이 끝나는 지점에서 10월 9일부터 날짜별 일기가 시작된다. 이보다 앞선 10월 6일에 효종은 신흥망을 평안도 碧潼으로 정배하라고 하교하였다. 정배의 명을 거두어달라며 승정원이 여러 차례 계를 올렸으나 효종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은 채 羅將을 그날 밤 바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²⁵⁾ 신흥망의 일기는 이로부터 3일 뒤에 羅將 文貞民이 도착해 傳旨를 전달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신흥망은 전지를 받고 “전 참판 조석윤과 전 지평 신흥망은 나라를 업신여기고 黨論으로 방자하게 군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 다 멀리 귀양 보내 나라가 사형을 용서한 뜻을 보이라.”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읊긴 후, 조석윤이 죄를 입은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며 그와 자신이 함께 黨論을 내세

23) 신흥망, 『장사일록』, “余時在呈告中 將欲出而論啓 同列畏時模勢熾 固止之 且曰君已錄弘文 聞銓曹明日開政 將首擬君校理 蓋姑徐之 此啓一出則宦路從此塞矣 余笑曰 世間榮辱自有正分 余豈局束若轅下駒哉 遂先呈避辭 繼上彈章 獨啓非例 余豈不知 盖有所不獲已者也”

24)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9월 18일의 기사에는 수록되어 있다.

25)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10월 6일

운다고 인식되어 효종의 극심한 분노를 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의금부 사람이 늦게 도착해 일정을 하루 지연한 후 10월 11일 신흥망은 본가를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6일간의 여정을 거쳐 17일 한강 나루터에 도착하자 당시 장령 申悅道(1589~1659)와 대사성 張應一(1599~1676)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신열도가 보낸 편지를 보고 영의정 鄭太和가 차자를 올린 것과 이에 따라 조용히 압송하라는 특별한 하교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신흥망은 그 차자에 대한 효종의 비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10월 9일에 있었던 일인데, 신흥망이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음을 알고 신열도가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다. 신흥망은 한강 나루터에서 사간 李紜(1600~?)의 집으로 가서 잠시 쉬게 되었고, 이때 신흥망을 만나기 위해 여러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대사간 陸行善(1609~1663), 교리 蔡忠元(1598~1665), 수찬 吳挺緯(1616~1692), 홍주목사 洪瑱(1595~1655), 승지 朴吉應(1598~1656), 장령 申悅道(1589~1659), 대사성 張應一(1599~1676), 주부 申翊善, 전적 尹先哲, 봉사 都愼與(1605~1675), 남양현감 沈玖(1612~1672), 朴永健 등이었다.²⁶⁾ 이들은 모두 당시 현직 관리들이었다. 신흥망이 이들과 이진의 집에서 회포를 풀고 있을 때, 이진이 밀양부사, 신열도가 능주목사 그리고 장응일이 승지로 임명되었다는 政草를 받았다.²⁷⁾ 이후부터 신흥망은 신열도를 綾州丈으로 지칭한다. 일기에 의하면 신열도는 능주목사에 부임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신흥망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다. 신흥망이 이진의 집에서 친구들과 이별하고 慕華館을 향해 출발하자 신열도·심구·신익선이 뒤따라와 모화관 앞 길가의 石壇에 둘러앉아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때 사옹원 주부 姜典(1607~1676)이

26) 신흥망, 『장사일록』 1652년 10월 17일, “...(생략)... 歷抵靑坡李司諫子晦家 朝食仍爲小憩 陸大諫行之令公·蔡校理元甫·吳修撰君瑞·洪洪州景美令公·朴承旨吉應令公·申掌令晉甫丈·張大成經叔令公·申主簿翊善·尹典籍先哲·都奉事明叔·申典籍景藏·沈南陽久玉諸人 皆來見 ... (생략) ...”

27) 이와 같은 사실은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10월 17일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그가 減等付處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리에 모여 있던 친구들이 이 소식을 함께 듣고 기뻐하며 위로해줄 때 신흥망은 그 상세한 배경은 듣지 못했다고 의문을 품었는데, 밤늦게 홍제원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의문이 풀렸다. 마침 鄭公達 令公²⁸⁾이 分發 한 부분을 보내주었는데, 兩司가 올린 계사에 대한 효종의 비답이었기 때문이다. 신흥망은 분발에 적힌 “조정에 관계된 일이므로 결코 고칠 수 없으나, 재앙을 두렵게 여길 이때 너그러운 은전이 없을 수 없으니 특별히 減等하여 付處하게 하라.”²⁹⁾라는 효종의 비답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큰데도 성은이 여기에 이르렀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다. 여기까지가 10월 17일의 일기 내용에 해당한다.

10월 17일 이날 신흥망은 한강 나루터에 도착해 이진의 집으로 다시 모화관 앞을 지나 홍제원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그를 찾아 와 위로했고, 동시에 당일에 있었던 조정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신흥망에게 도움을 주었다. 감등부처의 명이 있었지만, 兩司에서 부처 환수를 연달아 논계하며 허락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신흥망은 이때부터 한참동안 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한 채 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양사가 논계를 중지하고 배소가 평해로 정해진 11월 2일까지, 15일 동안 신흥망은 앞날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인들이 전하는 조정의 동향과 조언에 따라 처신을 신중하게 하는 데만 전념했다.

『장사일록』에는 신흥망이 이 기간 동안 도성 주변에 머무르며 상황의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지인들이 수시로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조정에서 있었던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모습도 생생하다. 아래의 표는 이 기간 동안 신흥망의 시선에서는 유배형 확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그 날 그 날의 일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28)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29)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1652) 10월 17일 기사

[표1] 『장사일록』 기록 내용 : 10.18~11.2(郊外에서 待命하던 기간)

| 날짜 | 거주 장소 | 일기 주요 내용 |
|-------|--------------|--|
| 10.18 | 홍제원 → 신열도 寓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진과 홍전이 편지를 보내 성 밖에 머물러도 무방할 것이라 조언, 신흥망은 불편한 마음에 우선 더 무르려 함 ▶ 사헌부 지평 李濼이 찾아와 郊次는 주워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신열도 우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 |
| 10.19 | 신열도 寓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事 李昌完, 主簿 蔡忠立, 奉事 都愼與과 權子萬, 直長 李道章, 承旨 嚴鼎壽 등과 유생 李觀徵·李鼎徵 형제 등이 방문 |
| 10.20 | 沈玖 家 → 이진 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참판 許積이 심구의 집에서 신흥망을 초청해서는 성난 말투로 경거망동했음을 지적하고 또 궐문 근처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편치 않다고 조언, 허적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진의 집으로 옮김 ▶ 장령 李爾松, 대사간 목행선, 홍주목사 홍전 등이 찾아 옴 |
| 10.21 | 이진 家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평 李濼이 편지를 보내고, 봉사 도신여가 술과 반찬을 보냄 ▶ 목검선이 아들 목임유를 보내 문안 ▶ 이진의 집에 손님이 많아 머무르기가 어려워 홍제원으로 돌아옴 ▶ 능주목사 신열도와 전적 李崑이 찾아 와 대화를 나눔 |
| 10.22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평 이온, 홍주목사 홍전, 능주목사 신열도, 승지 장응일 등이 각각 편지와 지원 물자를 보냄 |
| 10.23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 신익선이 찾아 옴 ▶ 신열도와 도신여, 이진 등이 편지를 보내 문안 |
| 10.24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열도가 편지를 보내 이조판서 심액과 鄭判書³⁰ 모두 迎曙에 進駐해도 될 것 같다고 여기지만 우선 기다리라고 조언 ▶ 홍전이 편지를 보내 23일 양사의 계에 효종의 비답이 다음과 같이 있었음을 알려줌 ‘몸을 닦고 반성하는 도리는 죄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모두 죄명을 씻어달라고 이처럼 고집스럽게 논계하니 너희들이 속이고 감싸는 것이 심하구나. 불허한다.’ |
| 10.25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柳植이 찾아오고, 司藝 崔煜이 편지를 보내 문안 ▶ 신열도가 편지를 보내 吳判書가 홍제원에 계속 머물러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알려줌 |

| | | |
|-------|-----|---|
| 10.26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열도가 편지를 보내 문안, 신익선이 사람을 보내 문안 ▶ 홍전과 이온이 모두 편지를 보내 문안, 또 前進하지 말고 그대로 머무르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언 ▶ 이진도 편지를 보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 ▶ 여러 조언에 따라 홍제원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움 |
| 10.27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전이 방문하고, 신열도가 편지와 지원 물자를 보냄 |
| 10.28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신여가 방문하고, 신열도와 이진이 사람을 보내 문안 ▶ 엄정구가 편지와 지원물자를 보냄 |
| 10.29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열도가 편지와 지원물자를 대거 보내줌 ▶ 亡友 李統의 아들 李文徵이 찾아옴 |
| 10.30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열도가 찾아옴, 홍전과 이온이 찾아옴 ▶ 신열도로부터 정언 鄭斗卿이 伸救의 소를 올렸다는 소식을 들음. *상소의 내용을 기록 |
| 11.1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열도가 편지와 지원 물자를 보냄. 그에게서 양사가 논계를 정지했다는 소식을 비로소 들음 |
| 11.2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과 신열도가 지원 물자를 보내 줌 ▶ 홍전이 편지로 停啓 후 평해배소로 입계했다는 소식을 전함. |
| 11.3 | 홍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해배소로 재가를 받음. ▶ 윤선철, 채진후, 李順男, 이진, 홍전, 朴啓榮, 심액, 元汝厚, 신익선, 임의백, 정창주, 이은, 채충립, 장응일 등이 찾아오거나 편지로 위로함 |

이 기간 동안의 일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당시의 현직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위로하거나 또는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물론 양식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조정의 동향을 거의 실시간이 다시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10월 24일에 홍전이 전달인 23일에 있었던 양사의 계에 효종이 내린 비답을 다음 날 편지로 알려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³¹⁾ 10월 30일에 신열도가 알려준

30) 심액과 교체된 鄭世規로 추측

소식은 정언 정두경이 조석윤과 신흥망을 위한 伸救의 소를 올렸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승정원일기』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마도 이날 신열도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을 전달해준 것이라 파악된다. 정두경이 올린 상소는 그의 문집인 『동명집』에 수록되어 있다.³²⁾ 신흥망이 신열도의 편지로 전해 받은 상소의 대략적인 내용은 ‘영남 사람들이 선현을 모욕한 말을 보고 분개하여 일어나 공격하고 배척한 것이기에 申某의 일은 결단코 黨論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흥망은 덧붙여 기록하길 “정두경은 평생 동안 세상 형편에 갇힌 사람이었는데, 공론이 이 사람의 입에서 홀로 나온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진실로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흥망이 평소 정두경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였고, 자신을 伸救해 주었지만 평소 교류가 없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0일의 일기에서는 허적이 자신을 불러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화를 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신흥망은 “許令公은 사람됨과 도량이 편협한데 그 말투와 낮빛을 보니 대개 내가 그에게 친하게 붙지 않은데다가 서로 의논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유감이 깊었던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이로 보면 허적은 신흥망을 가깝게 두려웠지만, 신흥망은 특별히 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11월 1일에는 신열도가 또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兩司가 부처의 명을 환수해달라는 논계를 비로소 정지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홍전이 논계를 정지한 후 평해로 배소를 정하는 계를 올렸다고 바로 알려주었고, 11월 3일에 평해로 배소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신흥망이 待命하며 머무르는 장소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정의 동향을 살피며 어디에서 대명하는 것이 신흥망에게 이익이 될지 세심하게 살폈다.

31)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10월 23일, 여기에 기록된 비답과 『장사일록』에 옮겨 쓴 비답의 문장은 글자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32) 鄭斗卿, 『東溟集』 권13, 「請全釋申弘望趙錫胤疏」

2. 도움을 준 인물들에 대한 꼼꼼한 기록

신흥망이 일기를 쓰면서 주로 기록한 것은 당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물과 그들이 준 도움이었다. 10월 11일 본가를 떠나 한성부로 출발한 그는 6일간의 여정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여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투숙한 곳에 그날의 날짜를 표기하였다.

■ 의성현 → 한성부

본가(의성현) → 비안현 村畬 → 예천군 수산역(10.11) → 함창현 德通驛 → 문경현 → 충주목 安保驛(10.12) → 충주목 단월역 → 충주목 용안역(10.13) → 음죽현 무극역 → 죽산부(10.14) → 양지현 → 용인현 어장포 주점(10.15) → 판교 → 良才驛(10.16)

본가를 떠날 때 아들과 사위 그리고 從弟와 從姪, 그리고 이웃의 친족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흥망을 배웅하며 비안현까지 따라왔다. 출발한 당일엔 예천의 李老一가에서 친구 權以亮과 함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회포를 풀었다. 다음 날 신흥망은 함창에서 충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났다. 먼저 서울에서 내려오던 부산첨사 朴而昭를 만났고, 영남인으로 사마시에 새로 합격한 李碩苾·朴恬·朴愼·蔣邦翰 등 8, 9인을 만나 잠시 동안 서울 소식을 듣기도 했다. 또, 오랜 친구인 柳世翊(1618~1681)과 李亘(1618~1686)을 만나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문경현에 이르렀을 때 문경현감 尹昌壽가 술을 들고 찾아와서 몹시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사마시에 새로 합격한 安夢徵·安斗徵 형제였다. 오랜 친구라 언급한 유세익은 유운룡의 증손으로 서애학을 계승하였으며, 훗날 영남 남인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柳世鳴(1636~1690)의 둘째 형이다. 이공은 안동 출신으로 호계서원 사액을 청원할 때 疏首로 활동했던 인물이다.³³⁾ 안몽징·안두징 형제는 예천 출신으로, 신흥망의 기록처럼 1652년 이 해에 진사시에 합

33) 李宗洙, 『后山集』 권18, 「高祖考府君家傳」 참조. 이공은 이종수의 고조부이다.

격했으나 이후 지역에 은거하며 학문에만 몰두했다. 10월 13일에는 충주목 水橋를 지날 때 성주 출신 李元禎(1622~1680)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신흥망은 삼사가 유배의 명을 거두어 달라는 계를 막 올렸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된다. 이원정은 이해에 증광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보아 서울과 성주를 오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원정은 앞서 1650년(효종1) 율곡과 우계의 문묘중사를 반대한 일로 調聖에 문제가 생겨 이후 5년간 등용되지 못한 이력이 있다. 신흥망은 다시 이동해 단월역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柳碩(1595~1655)의 두 번째 편지와 자신이 요청한 물자를 받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0월 14일 밤늦게 죽산부 촌사에 도착했을 때 죽산부사 백홍성이 술을 들고 찾아왔고, 그가 양식과 자금을 帖給해주었다는 것을 들었다. 고마워하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이시매와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때 상황을 신흥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 백홍성이 이시매의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말하는 사이에 비로소 듣고 알았다. 인지상정으로 살핀다면 저가 어찌 나를 후하게 대접하고 싶었겠는가. 그러나 말투와 낯빛에 드러내지 않고 접대의 예에 펼치지 않았으니 어찌 무인 중에 식견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³⁴⁾

인지상정으로 따진다면 백홍성이 자신을 후하게 대접하고 싶었을 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접대하였으니 그 식견을 높이 살만하다 하였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다. 10월 15일에 양지현 촌사에서는 양지현감 이덕하를 만났다. 그와는 당초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그가 비를 무릅쓰고 찾아올 정도로 정성을 보였으므로 신흥망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고마워했다. 그래서 그가 주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고꾸라질 때까지 마

34) 신흥망, 『장사일록』 1652년 10월 14일, “余初不知白也之於李時樸爲切親 言語之間始得聞知 以常情揆之 彼豈欲厚於我哉 然而不現辭色 不展接待之禮 豈武弁中頗有識見者也”

졌다. 아마도 고달픈 여정이 지속되면서 마음이 많이 지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본격적으로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만난 지인들 대부분 그의 유배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래의 표는 당시 교류했던 인물들의 특징적 면모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표2] 郊外에서 待命하던 기간(10.17~11.3) 동안 교류한 인물들의 주요 특징

| 인물 | 본관 | 현직 | 출신 | 당파계보 | 주요 사항 |
|----------------|----|----------|----|------|--|
| 睦行善(1609~1663) | 사천 | 대사 간 | 안산 | 남인 | ▶ 남인 許穆이 묘갈명을 지음 ▶ 영남 남인 인물들과 시문 교류 |
| 睦兼善(1609~?) | 사천 | - | 한성 | 남인 | ▶ 허목의 문인이자 남인의 영수 목내 선의 형 ▶ 이민구, 홍여하와 시문교류 |
| 睦林儒(1634~?) | 사천 | - | 한성 | 남인 | ▶ 목겸선의 아들 ▶ 송시열의 처벌 주장 |
| 蔡忠元(1598~1665) | 평강 | 교리 | 한성 | 남인 | ▶ 남인 蔡裕後의 숙부 |
| 蔡忠立 | 평강 | 주부 | 한성 | 남인 | ▶ 남인 蔡裕後의 숙부, 채충원의 동생. |
| 蔡振後(1602~1654) | 평강 | - | 한성 | 남인 | ▶ 남인 蔡裕後의 동생 ▶ 울곡·우계의 문묘종사 반대 |
| 吳挺緯(1616~1692) | 동북 | 수찬 | 한성 | 남인 | ▶ 남인 吳鐸의 아들 ▶ 경신대출척 때 유배 |
| 洪瑱(1595~1655) | 남양 | 홍주 목사 | 한성 | - | ▶ 영남 남인 인물들과 시문 교류 ▶ 남인 李敏求가 만사를 지음 |
| 朴吉應(1598~1656) | 밀양 | 승지 | 한성 | 남인 | ▶ 동악 이안눌과 여헌 장현광의 문인 ▶ 남인 許穆과 교류 |
| 朴啓榮(1597~?) | 밀양 | - | 한성 | - | ▶ 柳碩과 함께 김상헌 탄핵 |
| 李溫(1604~1675) | 함평 | 지평 | 한성 | 남인 | ▶ 우계·울곡 문묘종사 반대 상소 가담 |
| 許積(1610~1680) | 양천 | 호조 참판 | 한성 | 남인 | ▶ 온건파 탁남의 영수 |

申弘望의 유배일기 <長沙日錄>의 특징적 기록 경향과 자료적 가치(최은주)

| | | | | | |
|----------------|----|-----------------|----|----|------------------------------------|
| 沈玖(1612~1671) | 풍산 | 남양 현감 | 한성 | - | - |
| 李軫(1600~?) | 연안 | 사간 | 한성 | 남인 | ▶ 남인 李昌庭의 아들 |
| 李觀徵·李鼎徵 형제 | 연안 | - | 한성 | 남인 | ▶ 남인 李昌庭의 손자 |
| 申悅道(1589~1659) | 아주 | 장령/ 능주 목사 | 의성 | 남인 | ▶ 신원록의 아들, 장현광의 문인 |
| 張應一(1599~1676) | 인동 | 대사 성 | 전산 | 남인 | ▶ 장현광의 아들 |
| 都愼與(1605~1675) | 성주 | 봉사 | 대구 | 남인 | ▶ 서사원·정구의 문인인 都聖俞의 아들 |
| 李道章(1607~1677) | 광주 | 직장 | 칠곡 | 남인 | ▶ 정구의 문인, 이윤우의 아들 |
| 李嘗(1604~?) | 성산 | 전적 | 성주 | - | - |
| 嚴鼎壽(1605~1670) | 영월 | 승지 | - | - | ▶ 영남 남인들과 시문 교류 ▶ 남인 許穆이 묘명을 지음 |
| 鄭昌晔(1606~1664) | 초계 | 승지 | 한성 | 소북 | ▶ 부친 정시망이 인동부사를 지낼 때 인동에 머무른 적 있음 |
| 任義伯(1605~1667) | 풍천 | 동래 부사 | 한성 | 서인 | ▶ 김장생의 문인, 송시열·송준길과 교류 |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이 그의 처소를 드나들었다. 대부분 현직에 있던 관리들이었다. 한성에 거주했던 인물들은 신흥망이 초입사 후 관직에 나아가면서부터 교류 기반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관직에 먼저 진출한 지역 내 친인척과 지인들이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인물들의 전반적 경향을 보면 남인 계열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가문의 여러 인물들과 교류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인맥의 확장 측면에서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인조반정 후 예송문제로 완전히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기까지 서인과 남인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는 해도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색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슨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계열을 의식했고 친분을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또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연대를 통해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효종이 조석윤과 신흥망의 일을

護黨의 논리로 보며 분노했던 것은 어쩌면 뚜렷한 이슈가 없었을 뿐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신흥망이 待命하는 동안 교류한 인물들의 면면에서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선산·대구·칠곡 등 인근 지역의 인물들과도 교류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낮은 생활에서 同道라는 의식은 그 친밀감과 연대감이 더욱 배가되었을 것이다.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신열도는 의성 아주신씨 읍성과인 신원록의 둘째 아들인데, 같은 지역 내에서 자랐기에 아마도 어려서부터 관계가 남달랐을 것으로 파악된다.

유배지 평해로 가는 여정은 다소 느슨했다. 특히 풍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여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한성부 → 配所(평해)

홍계원 → 良才驛(11.4) → 판교 → 용인현 어장포 주점(11.5) → 용인현 금량역 → 죽산부 촌사(11.6) → 음죽현 무극역 → 충주목 용안역(11.7) → 충주목 단월역 → 신당촌 卞化家(11.8) → 청풍군 황강역 → 신녕현 장수역(11.9) → 풍기군 창락역(11.10) → 榮川郡(11.11) → 안동부(11.12) → 納谷(11.13) → 진보현 → (영양) 石溪 李時明家(11.14) → 영해부 朴玠家(11.15~16) → 평해 도착(11.17)

11월 5일 용인현에 이르렀을 때 용인현감 洪興祐가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고 行資도 넉넉하게 도와주었다. 다음 날 죽산을 지날 때 죽산부사 백홍성을 다시 만났는데, 역시 대접이 소홀하지 않았고 行資로 이런저런 양식들을 챙겨 주었다. 그러나 전날 받은 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11월 10일 풍기군에 들어서면서 신흥망은 지역 내에서 평소 교류했던 풍기군수 金述初와 만나 술을 싣기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 昌樂督郵 李晶도 초청했는데,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11일에는 榮川郡[영주]으로 들어가 正字 羅以俊(1602~1676)을 만났다. 나이준은 고령 출신으로 영주에 정착하였고, 이후 수성나씨의 영주 입향조가 되었다. 또 座首 張龍見(1602~1680)을 만나 그의 집에서 투숙하였다. 장용현은 장말손의 후손으로 퇴계의 문인

장수희의 손자이자 광해군대 절의를 지켰던 장응신의 아들이다. 장응신이 인동장씨 영주 입향조이다. 12일 안동에 도착하자 의성의 아들들과 사위들이 신흥망을 찾아왔다. 그리고 안동부사 李後天(1588~1661)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이후천의 아들 이정악은 김수항의 누이와 결혼하였으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또한 윤증이 이후천의 묘지명을 작성하였는데, 이로부터 이후천은 서인 계열에 속했다고 볼 수 있겠다. 신흥망은 안동에서도 지역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술과 음악 그리고 시를 지으며 회포를 풀었다.

11월 14일에는 진보현감 李守誠을 만났다. 그와는 향시에 함께 합격한 사이라며 꽤 친밀감을 드러내며 역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영양의 石溪 李時明(1590~1674) 집에 도착해 그의 아들인 이상일·이현일·이승일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이시명과 나란히 누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말년에 은거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가 미치자 이시명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산수가 뛰어나 그림과 같은 곳이 있다며 자신이 먼저 들어가 기다릴 테니 만약 원하면 반을 나누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흥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자신의 성향으로 보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16일 영해부를 지날 때는 上舍 南佺(1594~1654)을 만났다. 남길은 의병장을 지낸 난고 남경훈의 아들이다. 그리고 당시 영해부사 崔惠吉(1591~1662)이 신흥망이 境內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문안하고는 뒤이어 술과 음식을 들고 찾아와 한참동안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최혜길은 영의정을 지낸 漚川 崔鳴吉(1586~1647)의 아우로 본인도 대사헌·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나 1652년(효종3) 1월에 전형에 실정이 많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이때쯤 영해부사로 막 복직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흥망의 기록으로 보건대 두 사람의 친분이 가깝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신흥망은 11월 17일 配所인 평해에 도착했다. 그리고 12월 12일 감영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2일에 석방의 명이 있었다는 소식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평탄한 시간을 보냈다. 이때 평해군수는 盧濶이었다. 노즙

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신흥망에게 사람을 보내 문안하거나 盛饌을 지원하였다. 신흥망이 평해 배소에서 주로 만났던 인물들은 별감 鄭翊·좌수 朴應星·월송포 만호 韓繼姜 그리고 李尙逸·黃君式과 같은 인근 지역의 인사들이었다. 신흥망의 이런 기록은 유배일기를 작성하는 동안 만난 대부분의 인물들이 혈연·지연·학연을 기반으로 하거나 정치적 지향을 같이하는 집단 내의 인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한다. 만날 수 있었던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이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겠다.

3. 회고록 형식의 담담한 기록

신흥망의 『장사일록』은 유배 경험을 기록한 일기이다. 유배가 형벌로서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고 볼 때 또한 그것이 삶에 끼치는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날그날 즉시적으로 작성된 유배일기라면 아마도 저자의 슬프거나 두려운 때로는 격한 감정이 기록 내용 여기저기에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록자의 성향에 따라 또는 어떤 경험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일기마다 내용의 결은 달라진다. 그러나 일기의 즉시성과 현장성이 강할수록 기록자가 때마다 느끼던 자신의 감정을 무의식으로 투영하기 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사일록』은 신흥망 스스로도 밝혔지만 유배를 겪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때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기에 유배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절절하게 녹아있지는 않다. 신흥망이 궁극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것은 당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준 인물들과 그리고 유배 여정에서 또는 유배지에서 만났거나 교류했던 인물들에 더욱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누구에게든 지원받은 물자가 있을 때마다 종류와 양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기록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일기에서는 그의 절절한 감정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다만 맞닥뜨린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심경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

감정이 매우 절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록이 많지도 않다. 아마도 이것은 훗날 신흥망이 그 당시 자신의 심경을 떠올리며 기록했으므로 좀 더 객관적 시각에 입각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일기가 시작되는 10월 9일, 유배의 명을 받은 이날 신흥망은 술에 취해 寢房에 누워 아내와 놀랍고 슬픈 마음을 나누다가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그는 평생 동안 오직 愼重함을 제일의 공부로 삼았는데 결국 임금의 노여움을 사 絶塞로 유배되는 위기에 빠졌으니 이것은 운수에 관계된 것이 아니겠냐며, 약간의 후회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러면서 옛사람들은 환난에 빠져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자신 또한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동시에 변방 궁벽진 곳이 반드시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꺼리를 찾았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고 나서야 신흥망은 다소 마음이 풀어져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했다. 막막한 유배 생활을 떠올리며 느낀 신흥망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임에도 서술이 매우 절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후 한성으로 압송되는 과정 그리고 홍제원에서 한참 동안 대명하는 기간 동안은 감정의 노출은 거의 없이 만난 사람과 그들에게 지원받은 식량과 물품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는 조정의 동향을 기록하는 것에 치중했다. 아마도 긴장감 속에서 그의 모든 관심이 유배형이 어떻게 결론날 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월 4일 홍제원을 떠나 11월 6일 용인을 지날 때, 신흥망은 길에서 자신이 쓰던 채찍을 떨어뜨려 잃어버리면서 예전 기억을 떠올렸다. 이 채찍은 예전에 관직 부임으로 상경하던 도중에 역시 길에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며 세상의 득실에 비유했다. 효종이 마지막까지 부처의 명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도중에 감동부처되었고, 그 배소도 고향과 가까운 곳이어서 신흥망은 마음이 다소 풀어진 듯 보인다. 처음 변방의 벽동으로 정배되었다는 전지를 받았을 때, 놀라고 경직

35) 신흥망, 『장사일록』 1652년 10월 9일.

되었던 그의 마음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배소가 확정될 때까지 흥제원에서 명을 기다리며 그 긴장을 완전히 늦추지는 못했던 탓에 모든 것이 결정된 후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11월 8일에는 羅將과 길이었갈린 상황을 기록하고 뒤이어 집안의 노비인 변화의 집에 들렀는데 과객을 대하듯 접대가 태만하므로 꾸짖고 매질했다는 이야기를 비교적 길게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신흥망의 관심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음 날 청풍군에 들어가면서 그곳의 산수 경치를 감상하며 지나는 모습으로 더욱 부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흥망은 배소인 평해로 가는 동안 지나는 지역마다 친분이 있었던 인물들을 만나며 때때로 회포도 풀었다. 그는 긴장이 충분히 이완된 채 11월 17일 평해에 도착했고, 도착해서는 별다른 출입 없이 정해진 처소에 머무르며 자신의 처소를 드나드는 사람들만 만났다. 신흥망이 이 기간에 주로 기록했던 것은 매일 수령이 사람을 보내 문안하는 일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역시 그들이 지원하는 음식과 물품들이었다. 간혹 고향과 소식이 막혀 걱정하고 답답해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사건이 없는 날들이었다. 그러다가 12월 12일 석방의 명을 전달받자마자 이틀 뒤 14일에 곧장 越松으로 향했다. 12월 14일의 일기는 월송정 주변을 둘러보며 절경을 만끽한 경험과 돌아오는 길에 황군식이라는 인물의 집에 있는 호연정에 들러 그의 요청으로 시를 지은 일 등을 꽤 길고 자세하게 기록했다. 아래의 예문은 이날 월송에 도착해 그 경관을 기록한 부분이다.

식사 후에 鄭翊과 함께 越松에 갔는데, 사위 박문약도 따라왔다. 노회재가 뒤따라 이르렀다. 北門의 누정에 오르니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임해있고 남쪽으로는 멀리 맑은 강이 보였으며 서북쪽으로는 흰 모래가 옥가루를 펼쳐 놓은 듯했고 무수히 많은 푸른 소나무가 뿅뿅하게 서 있었다. 서성이며 둘러보는 사이에 가슴 속이 상쾌해짐을 느끼니 진실로 嶺東의 명승지이다. 만약 임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이곳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³⁶⁾

현재 울진군 평해읍에 위치한 월송정은 관동팔경 가운데 한 곳이다. 가까운 곳에 절경을 두고도 유람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본인의 처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가보고 싶지만 참고 있었던 것이다. 월송정에서 바라본 경관에 신흥망은 가슴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곳에 서서 대단한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효종의 은혜 덕분이라고 했다. 해배의 기쁨 속에서 신흥망은 모든 것이 감사했을지도 모르겠다. 월송정을 둘러본 이 날부터 평해를 떠나 21일 의성 구미리의 본가로 돌아올 때까지 해당하는 8일간의 일기에서 신흥망은 자신이 지은 시들을 종종 기록했다. 14일에는 황군식의 집에서 그의 요청으로 지은 시 2편을 모두 기록하였고,³⁷⁾ 16일에는 李翼世가 자기에게 준 시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시에 차운한 작품은 문집에 「追次李上舍翼世韻寄贈」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일과 집에 도착한 21일의 일기에도 자신이 지은 시를 기록하였다.

신흥망은 배소가 평해로 정해지면서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고 도착해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냈기에 이 기간의 일기는 비교적 담담하다. 서울로 압송되어 대명하는 기간 동안 잔뜩 긴장한 채 조정의 동향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장사일록』은 유배라는 고통의 경험을 기록한 일기치고는 그 속에 담긴 기록 주체의 정서가 전반적으로 객관화되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일기가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 바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훗날 기억과 메모를 토대로 재정리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36) 신흥망, 『장사일록』 1652년 12월 14일, “食後與鄭翊同往越松 朴甥亦從 盧希載繼至上北門樓亭 東臨大洋 南眺清江 西北則白沙如鋪玉屑 蒼髯無數森立 徘徊顧盼之間 斗覺胸襟快然 眞嶺東絕勝也 若非君恩 安能致余身於此地哉”

37) 신흥망의 문집인 『고송집』에는 이 가운데 칠언절구 1편만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은 「次浩然亭韻」이며 제목 세주에 “亭在平海越松浦 黃君濕家亭也”라고 되어 있다.

IV. 맺음말 : 『장사일록』의 자료적 가치

일기자료는 우선적으로 그 시대의 미시적 실상에 접근하는 사료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장사일록』 역시 신흥망 개인에게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역 출신의 중앙 관리 겪는 유배 체험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유배 형벌에 대한 사례를 확장하고 또 그 문화를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료적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

유배일기는 유배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유배형의 집행이 있어야만 생산되는 특수한 일기이다. 그 속에서 기록자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경험에 치중해 기록하느냐에 따라 유배일기의 성격은 여러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장사일록』의 특징적 기록 경향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신흥망은 1652년(효종3) 53세에 유배를 겪었고, 이 경험을 말년에 일기 형식으로 다시 기록해 자손에게 남기고자 하였다. 스스로 밝혔듯이, 이 기록을 통해 훗날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신흥망은 기억과 메모를 바탕으로 유배 당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들이 지원해 준 물자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였다.³⁸⁾ 아마도 그 도움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장사일록』의 특징적 기록 경향은 이러한 작성 배경으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이에 의거해 그 자료적 가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면적이기는 해도 17세 중엽 정계에 있던 인물들의 정치적 교류에 대해 미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과 같은 역사서에서는 개인에게 내린 유배 형벌의 형태와 유배형을 받게

38) 일기 시작 부분에서 신흥망이 처음 기록한 것은 의성을 떠난 다음 날 청풍에서 친구 권以亮과 함께 회포를 풀고 떠날 때 그가 지원해준 行資 품목으로 “季明以淸一升·生鷄一首·生雉一首·乾廣魚三尾·燒酒一器·銀口魚九尾驢行”(1652년 10월 11일)라고 쓰여져 있다. 이후부터 신흥망은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자를 지원받았고 그 때마다 받은 품목들을 위와 같이 낱낱이 기록하였다.

된 배경 또는 과정을 결과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흥망의 『장사일록』은 그 과정을 둘러싸고 조정의 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그 속에서 신흥망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현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유배형이 집행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지속되면서 집행이 중단되었고, 이 때문에 신흥망은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조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이 그의 처소를 드나들었는데, 대부분 현직에 있던 관리들이었다. 신흥망의 유배 원인과 집행 과정 속에서 어찌되었든 ‘護黨’의 논리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장사일록』에는 당시 남인과 서인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며 어떻게 교류하고 있었는지 영남 남인의 입장이었던 신흥망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조반정 후 예송문제로 완전히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기까지 서인과 남인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잇기는 해도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색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슨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계열을 의식했고 친분을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또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연대를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장사일록』은 당시 이러한 정치적 교감들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떤 틀 안에서 딱딱하게 고정된 것이 아닌 그 틀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둘째, 『장사일록』을 통해 좁게는 신흥망 개인의 인맥 네트워크 넓게는 의성 지역 아주 신씨 문중의 인맥 기반 구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신흥망은 유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접촉한 인물들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대개의 일기 자료들은 인물을 표기할 때 字 또는 역임했던 관직만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사일록』은 관리인 경우 일기 기록 당시 재직 중이던 관직명을 꼬박꼬박 표기하였고, 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을 표기할 만큼 인물 정보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예시한 아래 그림을 보면

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형태의 일기자료는 그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예컨대 그 작성 주체의 기록 보존의 욕망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로 인해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이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2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DB
申弘望, 『고송집』, 한국고전종합DB
李宗洙, 『后山集』, 한국고전종합DB
신흥망, 『장사일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김기엽 외, 『(국역)오봉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Abstract

Characteristic Record Trend and Data Value of Exile Diary
<Jangsaillok(長沙日錄)> by Shin Hong-Mang(申弘望)

Choi, Eun-ju

Gosong Shin Hong-Mang(1600~1673)'s exile diary 『Jangsaillok』 was written from October 9th to December 21st 1652(The 3rd year in the reign of King Hyojong). From October 9th to 17th, the journey to be transferred to Hanyang was recorded. After that, for about 25 days till November 13th, everyday, he recorded his situation of waiting for the order until the place of exile was changed from Hongjewon to Pyeonghae. At that time, Shin Hong-Mang had to wait for the order in Hongjewon for a long time because it took a long time to finally decide the place of exile. After Byeokdong(currently, Pyeonganbuk-do) was originally decided as the place of exile, the dispute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exile was continued in the Royal Court. Meanwhile, it was commuted and changed to the punishment of exile, which even caused confusion as the ministers asked for its withdrawal. During the rest period, he recorded the days of departing for the place of exile, living in the place, and leaving Pyeonghae after the exile was lifted.

In the results of examination, 『Jangsaillok』 clearly showed the characteristic record trend as follows. First, from the decision to the execution of exile, the dispute was continued in the Royal Court, and

the personal situation experienced by Shin Hong-Mang was described together with the political background in detail.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exile was recorded in real time, which is hard to be found in historical books such as 『Annals』 or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Of course, the individual's view is its clear limitation. Secon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exile, Shin Hong-Mang meticulously recorded people who helped him materially and emotionally, and monetary help they supported. Most of the people appearing in the diary were mentioned only as ja, ho, or public post, so it is tough to know who they were. However, Shin Hong-Mang made efforts to record 『Jangsaillok』 by marking each person with side dots. Regarding the marking of people, the name of public post was correctly written. In case when there was no public post, the name was clarified. Third, it was not recorded during the time of exile, but reorganized in the form of diary in his latter years, so the emotions felt by Shin Hong-Mang during the exile were objectively described. 『Jangsaillok』 was recorded by Shin Hong-Mang again afterwards. As a record meticulously showing the people who helped him, it would be good to fragmentarily, but solidly examine the political exchanges of people in the central political world of the time, and also to examine how the human network of Shin Hong-Mang himself or his clan was crossing the region and political position.

keywords :

Gosong Shin Hong-Mang, Obong Shin Ji Je, 『Jangsaillok』, Exile Diary, Uiseong Aju Shin Family, 『Gosong's Collection』